

연중 제32주일

기도서 473 번 (C해)

제1독서 : 마카 하 7,1-2.9-14

제2독서 : 데살 후 2,16-3,5

복음 : 루 가 20,27-38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삼 년 고개

박 창 신 신부

한 젊은이가 삼 년 고개에서 넘어졌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 고개에서 넘어지는 사람은 3년 이상 더 살 수가 없다는 전설적인 고개다. 이 젊은이는 고민과 번민 속에 얼얼한 수척해지고 몸마저 가누지 못한 채 누워있었다. 이때에 익살스런 친구가 찾아와 그 고개에서 다시 한 번 넘어질 것을 암시해 준다. 더 사는 해결책을 찾은 젊은이는 3년 고개에 가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오래오래 살리라 믿고 만면에 웃음을 띤다. 이 이야기는 눈 쌓인 겨울 깊은밤 화로불에 밤을 손자에게 구어주며 들려주는 할머니의 이야기라 할 것이다. 이 이야기 속에 삶과 죽음에 대한 민족의 깊은 통찰력이 담겨져 있다.

길가메쉬 서사시, 불노조를 찾는 진시황제, 아기로 변한 욕심장이, 삼 년 고개 등은 어느 민족이든 가져보는 삶과 죽음의 질문이라 하겠다. 마찬가지로 야훼 신앙에 돈독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확실한 내세관을 갖지 못했던 그들이 기원전 164년경에 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부활신앙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죽은 이들 운명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었던 것이다. 고급 재판관제인 사두가이파는 부활을 부정했고 평신도들의 단체인 바리사이파는 부활을 주장하며 현세와 부활 후는 동질의 것이라 주장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가이파들은 부활신앙을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 신명기 25, 5~6에 기록된 레비타법을 내세워서 바리사이파들의 현세와 부활의 동질성을 반박한다. (루가 20, 28~33)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내세워 하느님은 죽은 망령을 거느리시는 처량한 분이 아니시라 죽은 이들을 되살리시는 생기 있는 하느님으로 표현하시고(루가 20, 37) 부활이 있되 현세와 부활 세계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견해를 말씀하신다. 즉 부활은 현세의 연장이 아니라 극적인 탈바꿈임을 주장하신다(루가 20, 34~36).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시어 현세와 다른 차원에 몰입하신 분임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삶과 죽음 앞에 3년밖에 못산다고 고민하는 젊은이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위령성월을 지내고 있다. 모든 죽은 이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도록 기도하고 세례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결합(로마 6, 3 이하) 되어 영원한 삶의 새 생명체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자. (여산 주임신부)



항상 깨어 있어라

-아집을 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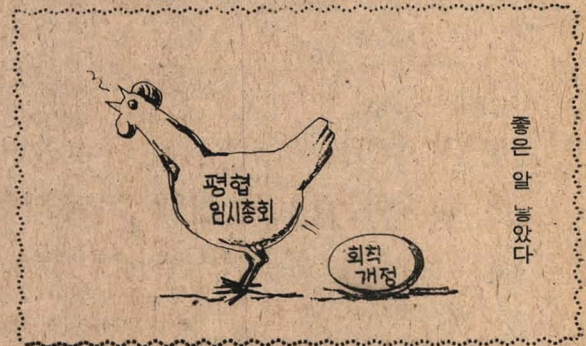
금년에 우리는 크나큰 죽음을 보았다. KAL기, 아웅산, 베이루트, 그레나다-언제부터 이러한 이름들이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했는가. 인위적인 죽음을 가져다 준 이 낱말들에 우리는 혐오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게 비명에 간 이들을 위해 더욱 머리를 숙이는 것이다.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 법칙이다. 그런데도 인간은 죽음보다는 삶이 더 낫다고 여기기에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한다. 그렇다고 병마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생명이 그 기능을 다할 때 누구나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인(先人)들은 '죽음에는 편작도 할 수 없다'라고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다.

교회가 11월을 위령성월로 정한 것은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며 그 영혼들과도 일체감을 갖게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또 하나는, 살아 숨 쉬는 우리들이 빠르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위령의 날 세계 미사의 복음 「열 처녀의 비유」에서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고 우리를 일깨우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항상 깨어 있는 방법의 하나는 아집(我執)을 버리는 일이다. "소아(小我)에 집착하여 자기만을 내세우는" 아집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각박하게 만든다. 특히 정치 지도자의 아집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종교 지도자의 아집은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깨다. 그러니 아집을 버리자는 말이다. 그렇다고 주체성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주체성과 아집을 구별하여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자는 말이다.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숲 정 이 산책



□ 위령성월 ①

11월의 생각

죽음에 대한 문제는 바로 삶에 직결된 문제이다. 위령성월에 우리는 생각해보자. 앞서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11월은 한 해의 마지막에 임박한 달이다. 나무잎이 땅에 떨어져 당굴고 어떤 동물이나 곤충류들은 그 몸을 감추어 동면에 들어간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어쩐지 인생의 황혼기를 느끼게 된다. 교회가 이달을 위령성월로 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인간심리에 알맞는 일이라.

서기 51년 성바오로가 메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그들이 자기에게 제기한 걱정스러운 문제에 대답한 일이 있었다. 그들은 죽어 세상을 떠난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특히 질문했는데 그의 대답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오우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회당에서 하느님이 죄에서 깨끗하게 된 자들을 예수와 함께 받아주시도록 교회는 죽은 형제들을 위해 언제나 기도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죽음을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있지만 막상 죽음을 문제 삼는다가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은 꺼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죽음의 문제를 의면해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기원 전 5세기 희랍의 시인이며 극작가였던 소포클레스는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가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돌려라. 그리고 미구에 죽을 것이라 생각하라.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하고 그대가 아무리 번민할 때라도 밤이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번민은 곧 해결될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내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나의 소원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 죽음이란 그 운명과 함께 그것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소포클레스의 말대로 우리가 가끔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것은 삶과 무관한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대자연이 죽음의 베일을 쓰는 이 11월, 위령의 달에 우리는 생각해보자.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자.

싱싱한 영혼

강남 성모병원을 거쳐 8살의 어린 나이로 선종한 요한군은 백혈병으로 1년 남짓 서울대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효험이 없어 병원측의 권고로 1980년 봄 퇴원했다. 그의 어머니만 가톨릭 신자인 이 가문은 이 어린이에게 퇴원 직전 세례성사를 받게 했다. 요한은 집에 돌아와 고통으로 몸부림쳤다. 그의 부모는 치료가 안되더라도 사는날까지 고통을 덜 받게 병원에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여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시켰다. 원목 신부님은 날마다 그의 방에 들려 이 어린이의 일과를 유심히 지켜 보았다. 요한군은 아직 국민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루에 10권 이상의 만화를 보는 것이었다.

“요한아! 너 그 그림책을 읽고 넘기니, 아니면 그냥 그림만 보고 넘기니?” “읽어요!”

“그럼 네가 읽은 것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요한은 책을 덮고 줄줄 설명했다. 신부님은 그에게 첫 영성체를 하도록 부모에게 부탁한 후 첫 영체에 관한 책 3권을 주었다. 며칠 후 요한은 한밤중에 “엄마, 신부님 모셔와! 나 영성체 할거야?” 하고 대뜸 말했다. 어머니는 “이 밤에 어떻게 신부님을 오시라고 하니, 내일 오실테니 그때 말씀드려 첫 영성체를 하자”고 말했다. 이튿날 신부님은 요한에게 “너는 머리로 준비가 다 되었는지 몰라도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하니까 며칠 지난 다음 주일날 하자”고 약속했다. 요한은 그 후 신부님이 들렀을 때 “신부님, 싱싱한 영혼이 무엇이에요?” 하고 물었다. “요한이 같은 영혼을 ‘싱싱한 영혼’이라고 한다.” 요한은 이 말을 듣고 빙그레 웃기만 했다.

성신강림 주일에 요한은 첫 영성체를 했다. 그는 날마다 영성체를 하고 싶어했다. 요한은 하느님을 보듯이 그분을 얘기했다. 예수님상의 가슴에 손을 얹고 “꼭 천기가 오는 것처럼 찌르르 해져요”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다. 주사를 맞으며 아파 울다가도 “엄마! 난 그래도 예수님보다 덜 아프지? 못은 주사바늘보다 훨씬 크잖아!” 하며 울음을 그친 일이 있었다. 그는 십자가의 고통을 아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기도했다. “하느님, 우리 요한이가 빨리 건강하게 되어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엄마! 무슨 기도가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기도했니?” “하느님, 나는 아파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이가 되고 싶어요. 하고 기도했지”

임종이 가까와졌다. 어머니가 몸부림치며 애타게 불러도 아무 반응이 없던 그는 신부님이 “요한아! 성체를 모시고 왔다 입을 벌려라” 하시자 그는 입을 방긋 벌렸다. 요한은 마지막 성체를 모시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도 기뻐하던 하느님의 품으로 갔다. 그가 임종한 후 가족은 모두 세례를 받았다.

가을맞이 관광 (설악산·제주도) 전 일 관광 ☎ 6-6666~8 조(안토니오) 선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T.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김 테레사(금순) ☎ ① 9206 · ③ 5289

[[SS]] FASHION 전주 특약점 버 킹 검 위 크 엔 드 로가디스 소사이어터 간 이 북 런 던 포 그 세계적인코트의명문 NEW MAN 777 진주시 중앙동 3가 샴화약국 옆 ☎ 4451 주인 유 율리안나



□ 교구 사목협의회 구성 및 총회

교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회정신에 따라 교구 내 사목사항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실천적 결론을 내려 교구장의 자문에 응할 교구 사목협의회가 지난 4일 가톨릭 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가짐으로 발족을 보게 되었다. 그 구성원을 보면 성직자 평의회 회원 전원 17명, 수도자 3명(교구 수녀 연합회 3명), 평신도 지구 대표와 평신도협의회 대표 21명으로 구성되었다. 교구 발전을 위하여 회원들의 봉사와 사목협의회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 200주년기념 무료 개안수술 지정병원 및 접수처 변경 안내

2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세민 실명자들에게 빛을 찾아주기 위한 무료 개안수술을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서류 접수처와 수술병원을 변경하였으니 착오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처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청 사목국 200주년 담당자
2. 수술병원: ①광주 흥안과 병원-부안군, 정읍군, 정주시, 고창군, 임실군, 남원군 순창군, 장수군 지역 내 환자
②대전 이기석 안과-군산시, 옥구군, 익산군, 이리시, 완주군, 전주시, 진안군, 무주군, 김제군 지역 내 환자
3. 시력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시술하므로 가까운 지역 안과병원의 검진을 받은 후 의사의 소견과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접수해야 함
4. 구비서류: ①소정 양식의 추천서 1부, ②의료보호 2종대상자(녹색카드) 확인서 1부
③의료봉사 진료권 사본 1부, ④진료비 부담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주민등록 등본 1부

□ 교구 평협, 연수회 겸 임시총회 마쳐

교구 평협(회장-梁尙烈)은 지난 10월 29일~30일, 양일간에 걸쳐 가톨릭 센터에서 연수회 겸 임시총회를 가졌다. 39개 본당 가운데 24개 본당 사도회와 교구 단위 8개 단체의 대표 68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회칙 개정과 더불어 84년도 사업안 심의 편지문 채택 등 평협 진로 모색의 활기찬 모임이었다.

첫날 한 용희 교수(숙대)의 「교회 운영」에 대한 강의를 들은 참가자들은 부부동반해 온 대표들과 함께 즐거운 한 때를 보내기도 했다. 이 파티에는 박 주교님과 시내 본당 신부님 11분이 참석하여 분위기도 한껏 흥겨웠다. 이튿날은 김정리와 복자성당을 참배하고, 이 병호 신부님의 강의 「바람직한 평신도 상」을 들었다. 이어 두 시간에 걸친 친지한 대화는 가히 평신도 사목회의를 연상케 했다.

□ 연극 안내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조반니노 과레스끼 작)
일시 : 11월 8일-9일, 오후 4시·7시 장소 : 전북 예술회관 대극장
입장권 : 1,000원 (배표주), 연출 : 극단 공간

요심이(535) 김병오



제 3차

전통 성령세미나 안내

1. 일시 : 1983년 11월 12일 (토)~11월 19일까지
2. 장소 : 전통성당 소강당
3. 강사 : 김 정원 신부님
박 중신 신부님
박 찬권 신부님
김 보나 수녀님
권 대복씨
강 용웅씨
이 승우씨
4. 접수 : 11월 6일(일) 매일 저녁미사 후 전통성당 사무실에서 접수
5. 회비 : 3,000원
6. 준비물 : 성서, 성가책, 필기도구

감사합니다

연령 박 비리버(혼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들	박	중	근
			신	근
			중	상
			중	한
			중	탁

한국제과

선물용 케익, 빵 다과류 일 절
☎ ②6589 ②2176
유영문(가에따노)
김민주(가타리나)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4
(자동차 보험회사 앞)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②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겨울 난방용 기름
석유·경유

전주 풍전석유

보일러주입용 탱크차 대기
전주 ☎ 2-8745
한 베드로(상철)

<정성과 봉사>

금, 은, 보석, 시계

금진당

전주백화점 1층 52호
☎ ② 5506
정논지도

□마춤·대여

신부의 집

*웨딩드레스·연주복·
비디오촬영·폐백의상·
신부부케·야외촬영
관동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전화 ② 6951
정인기(논지도)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축! 견진**: 팔마본당 (6일)

1. 군중후원회: 7일 오후 7시, 장소-가톨릭 센터
2. 사목방문: 8일-성심학교, 9일-해성학교
3. 사제 평의회: 11일 오전 10시 30분
4. 소년 푸리아 성지순례 (치명산): 13일 오전 11시, 집결장소-전주 중앙성당, 준비물-묵주·도시락 회비-300원, 대상-레지오 전단원, 강사-강재희 회장님·김낙완 선생님
5. 제2지구 회의: 7일 오후 7시, 장소-팔마성당
6. 전주지구 지구회의: 8일 저녁 8시, 장소-덕진성당
7. 전화번호 변경 안내: 화산성당-④ 3671, 장수성당-④ 2264

(중앙)

전화 ④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안철인
 사도 회장 김길협

1. 금암성당 상반식: 25일 어머니미사 (본당미사 없음)
 2. 청년성가대 성탄 계곡연습: 9일~12월 23일까지 (33일간) 토·일요일 계곡의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3. 도서전시: 오늘 (수녀연합회 주최)
 4. 묵주기도 100만단 바치기: 577,046단 봉헌
 5. 차주 독서담당: 셋별 썰매시디움
 6. 푸리아: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805,020원 **교무금**: 869,400원
새성당 주일금: 65,045원
감사헌금: 김명순(5천원), 전용대(1만원)

(노송동)

신부 ④0969
 수·사 ④7032
 주임 신부 김윤태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이홍재

1. 건축행사 분과위원회: 오늘 공식미사 후 사제관에서
 2.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본당 오픈드레아: 오늘 저녁미사 후
 본당내의 남녀 푸르실리스트들은 빠짐없이 참석
 4. 중·고등학교 교리: 매주(일) 오후 5시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5. 청년회 모임: 매주(일) 오후 3시, 꼭 참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371,710원 **교무금**: 496,000원
아파트 봉헌금: 98,700원 **교무금**: 87,000원

(덕진)

신부(3) 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수녀(72) 1222 보좌 신부 정양현
 사무(72) 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사도회 각 분과위원회: 오늘 공식미사 후, 83년 사업평가 및 새해 계획수립을 위한 회합이녀 전원참석
 2. 11월은 위령성월: 앞서가신 분들을 위해 연도와 미사 적극 봉헌하고 참여합니다
 3. 내가 바친 작은정성(봉헌금)은 선교의 밑거름: 봉헌 배가로 교회발전 도우시라(월보 결산 참조)
 4. 다음주 모임: L.M. 푸리아 회의
 5. 반모임(형제회)에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본당 월보-회합일정 참조) 적극적인 참여 바람
 6. **축! 결혼**: 11월 13일(일요일) 12시 30분
 신랑-신광섭(가밀로), 신부-송은숙(모니카)
 11월 19일(토요일) 12시
 이상훈(바오로), 김영희
- **지난주 봉헌금**: 421,420원 **교무금**: 777,000원

(복자)

전화 ④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훈

1. 복자 부녀회 빈첸시오회: 7일 어머니미사 후
 2. 성우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푸리아 회의: 다음주일 오후 2시
 4. 견진: 13일 공식미사(주일학교 어린이미사 오늘날 없음)
 ※ 견진교리-오늘 공식미사 후 저녁미사 후(의무적으로 교리에 참석할 것)
 ※ 견진자를 위한 고백성사일-10일~12일 오후 3시-5시, 저녁미사 전후
 5. 수녀원 신축헌금: 유복성(5,000원), 박차수(7,000원), 누계(6,310,500원)
 5. 금주전례: 해설-이명래, 독서-①이상기 ②정동민
 차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조성호 ②정운주
- **지난주 봉헌금**: 459,720원

(서학동)

전화 ④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가정방문: 8일-6만, 9일-7만, 11일-8만
2. 유아세례: 매월 첫째주일 공식미사 전(9시 30분)

3. 반장님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4. 푸리아 모임: 다음주일 오후 2시(회의실)
 5. 성심회 월례회: 다음주일 오후 3시 30분
 6. 수녀원 세탁기 기증: 김배근씨 감사합니다
 7. 차주전례: 독서-①김찬희 ②강기호
- **지난주 봉헌금**: 262,615원 **교무금**: 210,500원

(술집이)

전화 ④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④9567 사도 회장 김수근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사도회 임원개편: 회장-김수근(유임), 부회장-이규철(유임), 선교분과-김경주, 전례분과-이철수, 봉사분과-이동원, 계경분과-노재두, 부녀분과-이정수
 ※ 전 임원들께서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2. 애령회 야외모임: 7일 8:30(내장사)
 3. 신영세자 야외모임: 9일 오전 6시, 성당에서 출발(내장사)
 4. 구역모임: 8일-진북2동 6구·진북1동(14:00), 금암1구(19:30), 10일-진북2동 1구·진북2동 7구(14:00), 태평동(19:30)
 5. 예비자교리: 화요일-①오전 10시 ②오후 7시 30분
 목요일-오후 7시 30분
 6. 차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박해근·이귀례
 기도-김영채·김성분
- **지난주 봉헌금**: 165,692원 **교무금**: 436,600원

(전동)

신부 ④6208 주임 신부 김병열
 사무 ④3222 보좌 신부 박찬길
 수녀 ④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사도회: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학생미사 후
 3. 자모회·잠우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성마리아·푸리아: 다음주 오후 2시
 5. 예비자 교리안내: 수·목-저녁미사 후(보좌신부)
 금-오전 10시 30분(김세시리아 수녀)
 토-오후 3시 30분(임로자 수녀)
 일-오전 11시(김세시리아 수녀)
 6. 제3차 섬례미사: 12일~19일까지
 7. 가정방문 일정: 동완산동·서완산동-8일~11일, 동교동·서교동-15일~18일, 풍남동·남노송동-22일~25일, 경원동·중앙동·기타-29일~12월 2일
 7.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박종주,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서정옥, 독서-①신일균 ②이영희
 저녁미사: 해설-김석란, 독서-①최홍만 ②김희진
- **지난주 봉헌금**: 613,010원 **교무금**: 275,000원

(파티마)

신부 ④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수녀 ④4804 사도회장 황희상

1. 푸리아 회합: 오늘 2시에
 2. 사도회 월례회: 오늘 없습니다
 3. 사도회 총회: 다음주(13일) 오후 2시에 유치원에서 개최합니다
 총회 참가대상-회장단, 각부 차장급, 신심단체장, 감사단, 고문다
 4. 견진성사: 12월 18일 예정
 견진자들은 사무실에 신청을 내주시시오
 5. 10월말 현재 본당 운영사항
 총수입-28,601,336원, 총지출-27,883,119원
 현재 잔액-718,217원
 축대공사비 부채-1,000,000원
- **지난주 봉헌금**: 277,100원 **교무금**: 539,000원